

일곱빛깔, 일곱개의 감각 통합하기

결과자료집

일곱 빛깔, 일곱 개의 감각 통합하기 결과자료집



일곱빛깔, 개인의 일곱 감각 통합하기

결과자료집



경기도문화재단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목차

I. 사업 총론

- 7 문화다양성의 가치와 실천전략 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대표)

II. 매개자 워크숍 <일곱 빛깔, 일곱 번째 감각찾기>

- 22 사업 개요
사업 목적

III. 세부 단체 사업

- 32 ART STAGE 다올-청평문화예술학교
34 (사)뿌리파예술단 경기도지회
36 (사)한국문화교육진흥원 평택시지회
38 (사)한국이애티협회
40 달그락 아트 컴퍼니
42 린(lean)협동조합
44 문화예술 상상바
46 아트크리에이티브그룹 행복한상상
48 예비사회적기업 아티처
50 와이즈발레단
52 정형일 Ballet Creative

56 IV. 전문가 좌담회



I. 사업 총론

결과자료집



일곱 빛깔,
일곱 개의
감각
통합하기

사업총론

문화다양성의 가치와 실천전략¹

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대표)

1948년 UN은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인류가 지속적인 공존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보편적인 인권의 가치를 천명했다. 이후 인류의 가치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세부적인 부분별 권리규약을 만들어 왔다. 2001년에는 유네스코에서는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을 했으며, 2005년 문화다양성 협약이 발효되었다. 한국은 2010년에 110번째로 문화다양성 협약을 비준했다. 2012년부터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이 시작되었고, 이후 문화다양성법이라 불리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1월부터 시행되었다. 본격적으로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알리고 실천하는 구체적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결과자료집

1. 문화다양성의 개념 발전

인권의 개념이 발전해 온 것과 같이 문화다양성의 개념 또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해 나가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문화다양성의 개념은 단순히 여러 문화가 존재한다는 의미였다. 탈식민지시기에 이르러 문화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운동으로 발전해 나갔으며 최근에는 민주주의와 연계되어 소수자의 권리보호와 국가 간은 물론 국내의 다양성을 다루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다시 정리하면, 1970년대 문화다양성의 초창기 개념은 문화다양성과 예술, 문화산업 그리고 창조성에 관련된 것으로 다양한 장르예술을 다루었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국가 간의 서로 다른 생활양식의 개념으로 다루어졌으며, 이후에는 문화다양성과 민주주의의 개념으로 성, 인종, 국적에서 오는 주변화와 차별 배제를 막는 개념으로 발전해왔다.²

일곱 빛깔,
일곱 개의
감각
통합하기

1. 이 발제문의 내용 중 일부는 문화돋보기에 실린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는 문화다양성'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2. 니나오블젠 외(2008) 유네스코와 문화다양성 / 노시훈 외(2014) 전남지역 문화다양성 정책방향 / 김현미(2016) 문화다양성 이해하기(강의 자료중)/중 문화다양성 개념발전 부문 재구성

문화다양성 개념 변화 단계³

구분	내용
제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문화가 예술 생산의 관점에서 논의된 시기 - 개별 민족국가의 문화는 동질적인 것으로 간주 - 다원주의는 국가 간의 문제로만 간주
제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의 개념이 정체성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확대된 시기 - 냉전 체제 속에서 강대국의 지배와 이념적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이 증가
제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발전과 연계되기 시작한 시기 - 연구와 정책 입안에서 큰 변화가 발생
제4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와 민주주의의 개념이 연계되기 시작한 시기 - 관련된 모든 문제를 포괄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 개념이 확장

사업총론

‘문화다양성’에서 말하는 ‘다양성’은 ‘모든 문화가 지닌 본질적이고 보편적 특성’이며, ‘문화다양성은 인간의 기본 권리’라는 휴머니즘 차원의 개념을 나타낸다. 즉 다양성이 문화 창조의 자양분이고 새로운 문화의 출현은 인간의 삶의 방식과 가능성의 확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문화다양성은 ‘문화 간 공존’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의 창조’를 함의하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즉 문화적 차이, 문화다양성 그 자체가 자원이고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성을 최대한 부각시켜 사회통합의 전제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근본적인 지향점이다. 따라서 문화다양성 정책은 소수자 및 다수자 간 다양한 문화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⁴ 다시 정리하면 문화다양성은 한 사회나 국가, 혹은 권역에서 언어, 관습, 종교, 라이프스타일, 정체성 등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들이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는 것을 의미 한다. 문화다양성은 문화적 차이들이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문화적 차이들이 서로 공존하는 것을 의미 한다. 문화다양성은 한 시대나 한 국가의 문화적 동화나 통합을 지향하지 않고, 다양한 문화들이 서로 차이를 드러내며 공존하는 것을 지향한다.⁵

3. 김규원(2014), 국외 문화다양성 정책 사례조사 및 분석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7페이지
 4. 류정아(2017) 문화다양성 정책 포럼(17.3.29, 국립고궁박물관) 발제 원고
 5. 이동연(2013) 문화다양성 포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 문화다양성 정책의 역할과 과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편, 한국사회에서는 2000년대 이후 급격한 이주민의 유입과 더불어 문화다양성을 단순히 이주민과 선주민간의 갈등해소 차원으로 다루거나 문화다양성 정책을 다문화정책으로 축소 또는 오인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물론, 문화다양성의 개념 속에서 인종차별은 매우 주요하게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이지만, 문화다양성은 피부색, 출신국가, 인종, 민족에 관련된 선입견과 편견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다. 문화다양성은 성적 지향, 장애, 지역, 종교, 이념 등 사실상 모든 종류의 차별에 관련되어 있다. 문화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특정 지역출신, 젠더, 특정 종교, 이념, 성적 지향 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되며, 상호이해와 교류 그리고 소통 노력으로 화합과 공존을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치판단에 있어서 기본 출발선은 보편적 인권이다.

2. 문화다양성의 필요성

1) 공동체의 평화로운 공존: 보편적 인권

공동체의 평등하고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다양성은 우리의 삶 전반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다양성은 주류나 기득권자의 입장만이 아니라, 다양한 인류가 이룩해 온 생활양식, 정체성, 문명 등을 즐기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인류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된다. 하지만 그간 한국사회는 다양성을 선택사항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결론을 미리 얘기하자면 '다양성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요소'다. 잘 알려진 것처럼, 생물 다양성은 생존 자체를 의미한다. 종의 다양성은 자연계를 유지하는 근간이다. 자연계만이 아니라 인류 문명에서도 마찬가지다. 인류 문명의 형성과 발전 자체가 다른 것과의 만남, 수용, 공존, 융합 그리고 재창조의 과정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국제적으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과 협약으로 국제사회 모든 구성원이 지키고 장려해야 하는 원칙으로 '다양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별 문화적다양성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더욱 다변화되고 다양한 가치가 발현되고 공존하는 시대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우리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개개인과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번영을 누려야 한다. 이때 서로의 다양한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첫 걸음이며, 이는 곧 인권을 지키는 것에서 출발한다.

2000년 2월에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문 [인권과 다양성]에서는 인권과 문화다양성 사이의 연관성을 명시했으며, 유네스코는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에서 다양성과 인권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결과자료집

일곱 빛깔,
일곱 개의
감각
통합하기

제4조 문화 다양성을 보장하는 인권

문화 다양성을 지키는 것은 윤리적으로 의무이며,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과 뗄 수 없는 것이다.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실천은 특히, 소수 민족과 원주민들의 권리를 포함한다. 누구도 국제법으로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데 문화 다양성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5조 문화 다양성을 위한 환경으로서의 문화권

문화권은 인권을 구성하는 데 뺄 수 없으며, 보편적이고 개인적이며 상호 의존적인 요소이다. 창의적 다양성이 번성하려면 세계인권선언 제 27조와 경제, 사회, 문화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 제13조 및 제15조에 명시된 문화권을 완전하게 실천해야 한다. 모든 이는 자신이 선택한 언어로 특히, 모국어로 자기 작품을 창조하고 배포할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문화 다양성을 전적으로 존중하게끔 질 좋은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또 인권과 기본 자유를 존중하면서 그 바탕 위에 자신이 선택한 문화적 생활에 참여하고, 문화적 실천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출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다양성을 인정하고 인정받는 것은 기본적 인권의 영역이다. 만약 차이를 다양성의 관점이 아니라 구분과 배제의 이유로 활용하여, 차별의 근거로 이용한다면 이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문화다양성 증진법의 제1조에서는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을 이 법안의 주유 목적중 하나로 명시함으로써, 문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각종 갈등과 차별을 치유하고 방지하고자 함을 밝히고 있다. 또한, 제3조 3항은 아래와 같은 차이를 명시하여, 다양한 종류의 차이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타인과 소수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너를 이해한다거나, 우리 이제 다양해지자고 말할 수 없다. 타자를 인식하는 첫 번째 단계는 차이를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이

다.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우리 모두 공존하자며 종용하는 것은 다양성의 증진이 아니라, 다수자에 의한 또 다른 강압일 뿐이다.

문화다양성의 진정한 실현은 주류와 다수에게 소외되고 억압받는 소수자의 기본적인 권리인정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또한, 단순한 구호를 넘어서 사회 정의에 맞게 실현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과 집단의 기본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문화다양성은 존재할 수 없다. 문화다양성의 실현은 타인과 소수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옹호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바로 이 점이 기본적으로 널리 인식된 상태에서 문화다양성 활동이 시작되었으면 한다.

2) 개인과 공동체의 경쟁력 강화

우리가 지금까지 다양성을 정치적으로 올바른 선택과 공존의 개념으로 다루었지만, 다양성은 공동체 또는 개개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력을 높이는 데도 필수적이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의 스콧 페이지 교수는 '다양성이 능력을 이긴다'(Diversity trumps ability)는 혁신적인 이론을 제시했다. 덜 똑똑하지만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그룹이 똑똑한 사람들로 구성된 동질적인 그룹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낸다는 뜻이다.⁶

똑똑하지만 덜 다양한 그룹보다, 덜 똑똑하지만 다양한 그룹이 복잡한 문제를 더 잘 해결하며, 더욱 생산적이라고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양성을 갈등 해결과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정치적, 윤리적으로 올바른 관점에서만 보아 왔지만 다양성은 위와 같이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더욱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다. 스콧 교수는 집단오류=평균 오류-다양성(The Crowds Error=the Average Error-Diversity)'이라는 공리를 입증하며 집단지성의 측면에서도 다양성이 증가할수록 오류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과자료집

일곱 빛깔,
일곱 개의
감각
통합하기

또한, 이러한 다양성의 인지적 측면을 성장시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체성의 다양성 즉, 인종, 종교, 성별 등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정체성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인지적 다양성이 성장하고 이를 통해 개개인과 우리사회의 실용적 측면의 경쟁력도 강화 된다. 이처럼 다양성을 공동체에서 보장하는 일은 윤리적 정치적으로도 올바른 일이지만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높이는 일인 것이다.

6. 2014. 3. 14. 매일경제 기사 '덜 똑똑해도 다양하게 뿔아라'

3.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의 원칙

1) 문화다양성은 ‘사업’이 아니라, 문화예술 정책의 기본적 철학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활동이 일정한 성과를 내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현재 가치 확산 활동의 주유 주체인 각 지역 문화재단 내부에서조차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에 따라 문화다양성 확산 활동에 어떤 지지나 지원구조가 없다는 점이다. 문화다양성이라는 개념을 ‘무지개다리사업’이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사업으로 처음 만나다보니, 각 지역문화재단에서는 ‘문화다양성’을 가치나 철학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새롭게 생긴 사업의 일환으로만 여기는 일이 벌어졌다.

문화다양성은 어떤 ‘사업’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한편, 지역에서 문화다양성의 가치 확산을 해야 할 중심 기관인 지역문화재단에서조차 다른 여타 사업과 마찬가지로 담당자 또는 담당 부서만의 문화다양성이 되는 경우가 있다. 담당자를 제외하면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거나 없으며, 따라서 사업수행에 있어 어떤 지지와 지원구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문화다양성은 문화재단 구성원 전체가 모든 활동에서 기본으로 여겨야 하는 원칙이다.

사업총론

왜냐하면, 문화다양성은 ‘인권’이나 ‘양성평등’과 같이 우리의 일상 전체 활동에서 삶의 태도와 선택에 관여하는 **철학이자 가치관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활동을 진행하거나 정책을 만들 때, 그 사업이 인권이나 양성평등으로 분류되거나 명시된 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원칙을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듯 말이다. 문화다양성은 모든 활동과 정책에서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적용해야하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

2) 나로부터 출발하는 문화다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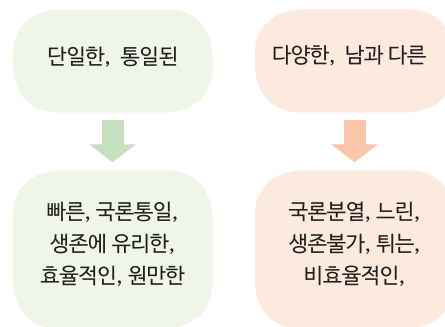
‘2015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연수과정’을 진행하며 청취한 담당자들의 가장 큰 고충중 하나는, 담당자 스스로가 타인의 다양한 가치를 온전히 수용하거나 포용하기 어려워하며 바로 이점이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무지개다리사업의 담당인력 또한, 삶의 영역에서 한 개인일 뿐이다. 본래 자신이 지니고 있던 정체성에 따른 자신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가치와 정체성에 대해 포용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타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공존할 것인가가, 문화다양성의 핵심가치 중 하나이다. 문화다양성의 첫 번째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 ‘나’조차 수용하거나 포용하지 못하는 가치를 어떻게 타인에게 수용하라고 요구할 수 있겠는가? 나 자신부터, 문화다양성의 가치에 동의하고

더욱 포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일상의 삶에서부터 갖고자 노력해야한다. 이후, 현재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과 주관하는 사업들에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한번쯤 스스로의 잣대를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부터 문화다양성 증진 활동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새롭게 보고 다시 보았으면 한다.

3) 단일 이데올로기 극복

오랜 시간 동안, 단일주의, 획일주의가 생존에 필수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믿어왔던 한국사회가 이제 문화다양성의 시대라는 구호 몇 마디에 다양해 질 수는 없다. 나의 일상과는 거리가 먼 단어로 생각되기도 하고, 설령 관련이 있다 해도 나 자신이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변화되어야 할 주체임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산업화시대를 거쳐 오며 한국사회에서 다양하다는 의미는 '통일된' 또는 '단일한'의 반대 의미로 혼란스럽거나, 경쟁력이 없다는 의미로 사용되어 오기도 했다.



결과자료집

일곱 빛깔,
일곱 개의
감각
통합하기

이런 한국사회의 구조 속에서 단순히 '문화다양성을 확산하자!' 라거나 '차별을 금지하자!'라는 선언적 구호만으로는 다양성의 가치를 확산하기는 어렵다. 문화다양성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에 관련된 일이다. 당연히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지난한 일이다. 단순히 일정기간 사업을 수행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그 과정 과정이 그리 순탄치 않을 것이며 곳곳에서 가치와 가치가 격렬하게 충돌하는 일도 벌어질 것이다.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성이 투표권을 갖는 일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음을 생각해 보자. 그리고 불과 5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흑인들은 버스와 식당, 그리고 학교에서조차 백인과 함께할 수 없었다. 문화다양

성 가치를 확산하는 일이 아름다운 꽃길만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우리 인류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임은 분명하다.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일련의 활동이 유행에 편승하는 사업영역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 또한, **일시적인 활동으로 즉흥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노력은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모두가 지치지 않고 함께 진행했으면 한다.

4. 문화다양성 확산 실천전략

1)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인식개선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의 핵심은 결국 인식개선 활동이라 하겠다. 인식개선 활동을 할 때, 다수자와 소수자 모두가 그 대상이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처한 환경에 따라 소수가 되기도 하고 다수가 되기도 한다. 인식개선 활동을 한다고 하면 소수자에게만 그 변화를 요구하는 경향도 있다. 요즘도 종종 다문화교육을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다. 소수자를 문제 집단으로 평가하고 이들을 바꾸어 다수의 정체성에 동화시켜려는 의도일지도 모르겠다.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족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다수자 또는 주류사회가 본인들이 설정한 정상의 범주에서 밖에다 두고 윤리적인 배제와 혐오 차별이 문제이지 소수자 당사자가 문제 집단은 아니다. 사회 속에서 구성원으로 함께 평등하게 공존하기 위해서 다수자의 차별과 배제 의식을 개선하는 활동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통해 단순히 차별과 혐오를 하지 않는 시민이 아니라 차별과 혐오에 당당히 맞서는 시민의식을 길러주어야 한다.

2) 다양한 구성원 간 더 활발한 소통과 교류

다양한 구성원 간에 더 많은 만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평소의 선입견과 편견에 대항할 수 있게 하고 공동체의 똑같은 구성원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소문과 괴담, 잘못된 정보로 형성되고 고착화 되는 편견과 선입견을 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직접 만나며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길이다.

최근의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⁷ 학교 또는 직장동료, 친구관계, 친척관계 등 접촉

7. 안상수 외 (201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연구

가능성이 높은 관계일 때 그렇지 않은 관계보다, 다문화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나왔으며, 특히나, 자신과 동일한 직장이나 직군에서 일하지만 서로 만 날일이 없는 경우 다문화수용성이 다른 경우 보다 낮은 것으로 나왔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다문화교육을 3회 이상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다문화수용성이 월등히 높았다.

또한, 몇 년 전 유럽사회에서 '다문화주의 실패 선언'은 비주류와 주류사회가 서로 적극적으로 소통과 교류하지 않고 각자 물리적인 공간에서 개별적으로 거주하는 것만으로 다문화주의를 하고 있다는 착각에 대한 반성이었다. 이후 더 적극적인 소통과 교류를 강조하는 일종의 '상호 문화주의'가 이야기하는 것 또한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대목이다.

소통과 교류가 선택이 아니라 우리 구성원 모두의 의무임을 알아야 한다.

3) 다양한 실천 전략 시도

대표적인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인 무지개다리 사업의 경우, 2012년 사업 초기에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소위 다문화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점차 문화다양성 개념에 대한 학습부터 시작해서 지역의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에 대한 연구사업을 진행했으며, 지역의 주요자원과 협력기관들과의 네트워킹과 공동학습을 위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도 했다. 이후 무지개다리 사업은 △문화다양성 진흥 기반 마련 △소수자 문화의 영향력 증대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이라는 3가지 추진전략을 설정하게 된다. 이런 실천 추진전략 속에서 각 지역재단 및 공공기관 그리고 함께 사업을 수행한 많은 협력기관들은 다양한 시도를 거듭하였다. 하지만, 사업초기에는 기존의 다문화사업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제대로 된 문화다양성 개념 정립도 없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사업을 직접 수행해야하는 대부분의 담당 인력로부터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고 참고자료 조차 너무 없다는 불만도 많았다. 실제로 개념연구가 먼저 진행되고 이후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는 일반적인 사업구조와 다르게 문화다양성 개념연구는 사업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난, 2014년에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사업초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2016년도 5년차에 이르면서 각 지역별로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2014년에 17개 지역재단에서 124개의 프로그램이 시행되었고, 2015년에는 23개 지역재단에서 183개의 프로그램에 108,838명이 참여했다.⁸ 다양한 시도들이 지속되면서 경험이 축적되었고 일정한 성과를 나타내는 사업들도 나타나기

결과자료집

일곱 빛깔,
일곱 개의
감각
통합하기

8. 2015년 무지개다리 사업 컨설팅 평가 연구보고서, 201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작했다. 초기의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정한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은 다양한 주체들의 실험적인 여러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 아직까지 선행 성과나 연구가 축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실험적인 시도들이 더욱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평등하고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개별적인 차별받는 소수 당사자의 힘만으로 혐오에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수의 힘으로 혐오와 차별에 저항하며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여러 활동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2014년 5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약칭:문화다양성법)을 2014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이 법의 제1조에서는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을 이 법안의 주요 목적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2016년 11월 전라남도 의회는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했다.⁹⁾

이 조례의 내용에는 문화다양성법에는 없는 주요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 조례에는 문화다양성 센터 설치, 문화다양성 기금 마련 항목이 추가되었다. 특히 더욱 중요한 사항은 차별사항이 인지된 경우, 도지사가 권고를 내릴 수 있고 이후 구체적인 지원과 사후점검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혐오와 차별에 대항하기 위한 활동에 매우 중요한 도약이다.

결국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지속가능성과 정당성을 담보해야 하며, 사회 전체가 혐오와 차별이 바로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공동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상황 변화 속에서 다양성의 가치가 훼손되고 차별과 혐오의 확산을 막기 어렵다. 인식개선과 제도적 보완 그리고 지속적인 실천 노력이 더해진다면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통해 다양한 구성원들이 평등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사업총론

9. 이뉴스투데이 2016. 11. 7. 전라도의회 문화다양성 보호 증진 조례로 지원

10. 장현선(2016) '2016년 무지개다리 사업 컨설팅 평가연구', 한국문화예술회위원회 99

5.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활동, 우수사례 및 특징 (무지개다리 사업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문화다양성의 여러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직접 가치 확산을 실행해야 하는 전문인력 또는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 질 수 밖에 없다. 2012년부터 시행된 문화부의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사업인 '무지개 다리 사업'은 초반의 여러 어려움과 비판이 있었지만, 사업 6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많은 실행기관과 담당자 및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얻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16년 사업에는 24개 운영기관에서 총 233개의 프로그램이 실행되었다. 다년간의 여러 시행착오와 다양한 실패와 성공사례가 축적되었다. 이 과정과 현재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지역에 적합한 가치 확산 실행 계획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016 무지개다리 사업 우수 사례 특징¹⁰⁾

추진전략		우수사례 특징
문화다양성 기반형성	주제기반	1.문화다양성 조례 제정을 통한 지역기반 공고화 2.협의 구조를 통한 과제 발굴 및 프로그램 기획 3.민관 협력의 거버넌스 구축과 실행 4.사업 운영기관 내 문화다양성 관점 반영
	협력기반	5.지역 행정의 협력구조 설계 6.워킹그룹의 자발적 성장 7.목적별 네트워킹 형태 분화 발전 8.운영기관 협력사업 등장
문화다양성 가치발굴	소수문화 중점	9.소수자, 문화생비자(문화소비자와 생산자의 결합어)로 참여 10.소수문화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 활용
	문화교류 중점	11.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교류 활성화 12.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통한 문화교류 활성화
문화다양성 가치확산	공유 중점	13.주민 주도의 상호 협력형 지역축제 14.콘텐츠 중심의 종합 문화축제
	콘텐츠 중점	15.뉴미디어 시대의 디지털 기반 콘텐츠 활용 16.공중파 방송 광고 활용 17.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18.공유와 확산이 용이한 영상 콘텐츠 제작 및 배포

결과자료집

일곱 빛깔,
일곱 개의
감각
통합하기

2016년 무지개다리 사업 컨설팅 평가 연구에서는 무지개다리 사업의 우수 사례를 특징별로 분류하고 우수사례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¹¹ 아래 내용은 이를 발췌하여 기술하였고, 일부 내용은 재구성한 것이다.

1.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을 통한 지역기반 공고화

전남문화재단 - 조례제정을 위한 광주 전남 주요 4개 대학 연구기관과 업무협약, 전남도 및 도의회와 기반조성 작업 선행, 토론회등 지속 추진, 조례제정

2. 협의 구조를 통한 과제 발굴 및 프로그램 기획

청주시문화산업재단 - 라운드테이블, 지역미디어, 교육자, 청년등 20여명 참여, 지속적 참여로 지역내 이슈 공유 및 과제도출, 직접 수행

3.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 구축과 실행

부천문화재단 - 라운드테이블 학교, 교육청, 시민단체, 예술단체, 등 성북문화재단- 문화다양성 상설 사무국 설치

4. 사업 운영기관 내 문화다양성 관점 반영

광주문화재단 - 재단 문화행정 생태계 전환 재단의 경영평가 지표에 문화다양성 관점 반영

사업총론

5. 지역 행정의 협력구조 설계

김해문화재단 - 문화다양성 북 토크쇼 독수공방, '독서와 수다가 있는 공무원들의 방'의 준말로 공무원 대상 문화다양성 독서 토론 모임

6. 워킹그룹의 자발적 성장

김해문화재단 - 실행위원회 '김해에 산다', 성과공유회 '따로 또같이' 사업 3년간 형성된 네트워크가 지역 축제의 체험 프로그램 진행 등 지속 발전

구로문화재단 - 가리봉 어울림 한마당, 가리봉 아지트 조선족 밀집지역과 관계 맺기 성공

7. 목적별 네트워킹 형태 분화 발전

부산문화재단 - 문화다양성위원회 문화이음, 문화다양성 위원회가 주제별로 세분화 되며, 각 네트워크별로 결속력강화,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사업 진행

(문화다양성 가족, 문화다양성 교육, 여가와 배리어프리, 세대이해, 다양성 영화제, 세계 문화)

11. 장현선(2016) '2016년 무지개다리 사업 컨설팅 평가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01

8. 운영기관 협력 사업 등장

전남문화관광재단+경남문화예술진흥원 영호남이 만나면 기쁨이 두배 섬진강 생활권 내 영호남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방향 및 모델 개발 모색

9. 문화예술을 통한 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부천문화재단 - 상호문화교육, 부산문화재단 - 문화다양성 시민학교

성북문화재단 - 문화다양성 공동체 포럼

10. 문화다양성 매개인력에 대한 필요성 인식 형성

청주시문화산업재단 - 문화다양성 매개자교육 & 활동 워크숍, 방과 후 교사, 구연동화 강사 등 문화다양성 매개자 44명, 세계그림동화를 활용 연수 후 현장 활동 진행

11. 소수자, 문화생비자로 참여

김해문화재단 - 동아리 지원 '다름더하기' 시각장애안, 학교 밖 청소년 등 지역의 새로운 소수자를 발굴 하고 이들이 원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문화다양성 동아리 프로그램 진행

광주문화재단 - 고려 FM 고려인 마을 주민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방송 운영

결과자료집

12. 소수문화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 활용

부산문화재단 - 강제징용자의 20%가 부산항에서 출국, 부산거주 사할린 동포 200명인 역사적 상황고려, 사할린동포 이야기 아카이브 전시 및 샌드애니메이션 제작 배포,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전시 협력, 지역예술가 참여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다가치 토크콘서트 지역 이주민, 장애인, 노인고 청년등 상호이해와 교류를 위한 토크 콘서트

일곱 빛깔,
일곱 개의
감각
통합하기

13.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교류 활성화

부천문화재단 - 학교안 문화다양성 교육, 자유학기제를 활용하여 지역 교육단체들이 컨소시엄 구성, 3개 중학교 1학년 학생 전체에게 1학기동안 시민교육 진행

인천광역시영상위원회 - 이주민 미디어 교육

14.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통한 문화교류 활성화

부산문화재단 - 문화다양성 네트워크 페스티벌 '맵스테이지' 및 부대행사: 영화제, 오동숙의 카페, 주거공동체 오픈파티, 세대 대면 워크숍, 이슬람 문화투어, 북한음악살롱, 다국적 시낭송회

15. 주민 주도의 상호협력형 지역 축제

김해문화재단 - 문화다양성 프리마케, 부천문화재단 - 강남시장 마을축제

16. 콘텐츠 중심의 종합 문화축제

인천광역시영상위원회 - 디아스포라영화제

17. 뉴미디어 시대의 디지털 기반 콘텐츠 활용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문화다양성 무지개 수다방(보이는 팟캐스트)

충북문화재단 - 웹툰기자단

18. 공중파 방송광고 활용

부산문화재단 - 한 가지 약속 영상 제작 및 공익방송. KBS 부산방송총국과 업무협약, 공익광고 제작 송출 150회

19.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부산문화재단 - 문화다양성 스토리 발굴(편견과 차별을 경험한 부산인 40명)

안양문화재단 - 나이들수업2: 선배가 돌아왔다. 6회 강연 단행본 출간

20. 공유와 확산이 용이한 영상 콘텐츠 제작 및 배포

구로문화재단 - 디딤돌 구로 - 구로 돌아보기, 기회매거진, 문화다양성 이해를 돕는 짧은 영상제작, 지역 배포

II. 매개자 워크숍

매개자
역량강화
워크숍

일곱 빛깔,
일곱 번째
감각찾기



II. 매개자 워크숍 <일곱 빛깔, 일곱 번째 감각찾기>

1. 개요

- 사업명 : 매개자 역량강화 워크숍 <일곱 빛깔, 일곱 번째 감각찾기>
- 사업기간 : 2017년 8월 23일 - 8월 24일
- 사업장소 : 경기창작센터
- 사업대상 : <일곱 빛깔, 일곱개의 감각 통합하기> 사업참여자 40명
- 사업구성 : 워크숍, 강의, 공감파티 외
- 주최 : 경기문화재단
- 주관 : 경기문화재단, 공공미술 삼거리
- 세부일정

매개자워크숍

일곱 빛깔,
일곱 번째
감각 찾기

행사시간	8월23일 (1일자)	8월24일 (2일자)
10:00~11:00	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소개 및 단체 소개	강의2 양철모(믹스라이스) 공동체로 흐르는 새로운 움직임
11:00~12:30	워크숍1 김희연(문화기획자) 일곱 번째 감각 회복을 위한 몸 풀기	
12:30~13:30	점심	점심
13:30~15:30	강의1 이완(아시아인권문화연대)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특수성에 관하여	워크숍 3 문화다양성 기획 실습 2: 기획안 및 수업안 작성하기
15:40~18:00	워크숍 2 문화다양성 기획 실습 1: 사례연구 및 기획안 작성하기	-
18:10~20:00	웰컴 파티 함께 만들고 함께 먹는 저녁식사 반썬오(베트남), 난&커리(네팔), 보오즈(몽골)	

2. 목표

- 전문가 강의 및 워크숍을 통한 사회적 약자, 다문화 가정의 특수성 재인식
- 문화다양성 기획·실습 워크숍을 기반으로 기획 및 논리구조 재점검
-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사례 연구 수행을 기반으로 한 참신한 기획 콘텐츠 탐색



결과자료집



일곱 빛깔,
일곱 개의
감각
통합하기

매개자워크숍



일곱 빛깔,
일곱 번째
감각 찾기





결과자료집

일곱 빛깔,
일곱 개의
감각
통합하기





매개자워크숍

일곱 빛깔,
일곱 번째
감각 찾기





결과자료집

일곱 빛깔,
일곱 개의
감각
통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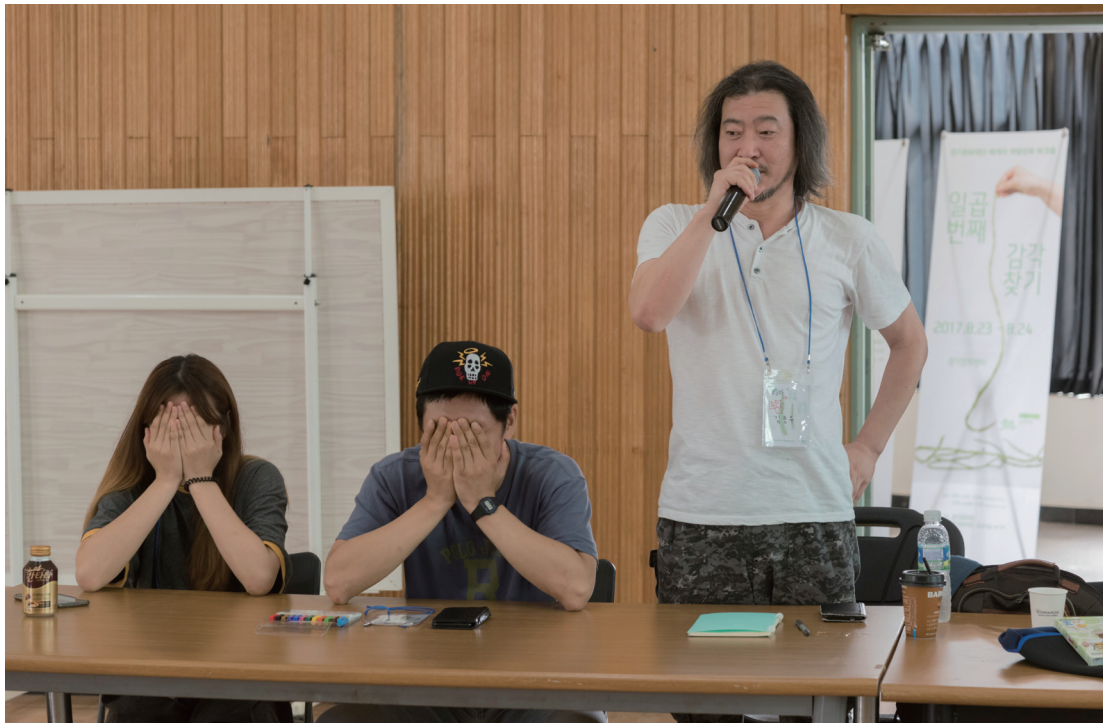




매개자워크숍

일곱 빛깔,
일곱 번째
감각 찾기





결과자료집



일곱 빛깔,
일곱 개의
감각
통합하기

매개자워크숍



일곱 빛깔,
일곱 번째
감각 찾기



III. 세부 단체 사업



ART STAGE 다올-청평문화예술학교
(사)뿌리패예술단 경기도지회
사)한국문화교육진흥원 평택시지회
(사)한국이앰피협회
달그락 아트 컴퍼니
린(lean)협동조합
문화예술 상상바
아트크리에이티브그룹 행복한상상
예비사회적기업 아티처
와이즈발레단
정형일 Ballet Creative

1. ART STAGE 다울-청평문화예술학교

- 설립연도 : 2000
- 소재지 : (12416)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문화로 131 가평문화예술회관 내
- 단체 소개 : ART STAGE 다울-청평문화예술학교는 2000년 설립 이래 공연예술과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신바람 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예술에 대한 쉬운 이해와 높은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해 가평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예술은 선택된 누군가가 누리는 특수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쉽게 즐길 수 있어야 하며 각자의 삶을 문화예술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비전 아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나눔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 사업명 : 누구나 꿈을 꾸다 - 영화 속 숨은 그림찾기
- 담당자 : 문종남 (031-584-8980, cpart@cpart.kr)
- 참여인력

세부단체사업

기획자	주강사	보조강사	보조인력	기록 및 기타	특강강사
진수영	진수영	정혜준	김다혜	김다혜	이현영
문종남		두미지		이준호	윤성은
				박소정	이종섭
				허동호	정미심
				조준희	



○ 공통질문

Q. 문화다양성을 무엇이라고 인식하셨습니까?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소견을 알려주세요.

A. 사람이 사는 곳. 그 길 위에 함께하는 공감 더하기

Q. 귀 단체의 사업진행 중 문화다양성은 어떻게 반영됐습니까? 기존의 수업과 문화다양성을 바탕으로 전개된 수업은 어떤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A. '다문화여서 미안해요'라 말하는 이번 프로젝트의 참여 친구들에게 함께 더불어 살기와 지역 구성원으로서 당당함을 갖게 하고자 하는것. 다문화 ○○(지수)가 아니라 우리 친구 ○○(지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나라마다 있는 '달'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쳐다보는 달은 "같은 달일까 다른 달일까?" 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ex 한국의 달 속에 옥토끼 이야기, 베트남의 꾸오이 아저씨가 가게 된 달나라, 일본의 달 속의 가구야 공주이야기 등) 이런 예쁜 달이 구름에 가려지면 나타나는 나라마다 있는 도깨비나 귀신이야기를 토대로 작품 만들기를 캠프에서 진행함으로써 같은 곳을 보면서 서로 다른 상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우치는 것이 목표인 무용통합예술교육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문화를 바라보고 체험하며 문화적 차이의 다름을 이해하고 다른 문화가 존재하는 가치를 조금씩 배워 나가며 다문화 ○○이 아닌 같은 동네 같은 학교 친구 ○○으로서 서로를 대하는 것에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을 두었습니다.

결과자료집

일곱 빛깔,
일곱 개의
감각
통합하기

Q. 귀 단체가 문화다양성을 바탕으로 펼치고자 하는 즐거운 사업계획은 무엇입니까?

A. 세계전통춤 페스티벌을 기획하여 세계 공통의 언어인 춤을 통해 문화를 나누는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전통춤 공연을 중심으로 각 참가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설치하여 서로의 문화와 풍습을 알고 이해하는 시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사)뿌리패예술단 경기도지회

○ 설립연도 : 2009

○ 소재지 : (16595)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6번길 21, 102-1003

○ 단체 소개

- 1988년 뿌리패 예술단을 창단, 2009년 경기도지회를 설립하여 국내뿐 아니라 해외공연 무대에서 호평받는 대한민국 대표 예술단

- 전통 타악과 무용을 바탕으로 창작과 재구성을 통해 새로운 한국 전통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예술단

- 인종, 세대, 계층,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대한민국 최고의 예술단

- 높은 예술성과 독창성을 통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대한민국 문화브랜드

○ 사업명 : 꿈꾸는 무지개 '홍'놀이터

○ 담당자 : 정은하 (010-3823-4692, eunha7070@naver.com)

○ 참여인력

기획자	주강사	보조강사	보조인력	기록 및 기타	특강강사
노기현	전보근	고은심	김지은	박성욱	김용재
	정은하	김덕환			
	정혜선	푸누안쌔앵두안			
	박성욱	왕그나			



○ 공통질문

Q. 문화다양성을 무엇이라고 인식하셨습니까?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소견을 알려주세요.

A. 대부분의 문화다양성이라 하면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다문화입니다. 그만큼 미디어나 사회에서 주목하고 관심을 갖는 사회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화가 표현되는 방식은 다문화인가 비다문화인가의 이분법적 사고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번 사업을 통해 더 포괄적으로, 일상에 늘 평범하게 녹아 있지만 인식하지 못했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고 이해하여 공존하는 것이 문화다양성을 수용하는데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문화 나눔의 과정에는 많은 다양함이 어우러졌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사람들, 그 나라들의 전통과 예술, 할머니와 부모, 아이들의 서로 다른 세대가 갖는 문화적 차이, 지역예술인들과 즐기며 공유할 수 있는 축제와 같은 무대, 이런 것들이 우열 없이 함께 표현되어지는 과정에서 그들이 형성하고 일궈낸 문화가 편견 없이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계층의 이웃과 만남을 이어가고 다양한 문화가 스스럼없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 여태껏 그냥 지나쳤던 다양함에 대해 한 단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Q. 귀 단체의 사업진행 중 문화다양성은 어떻게 반영됐습니까? 기존의 수업과 문화다양성을 바탕으로 전개된 수업은 어떤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결과자료집

A. 지금까지 이루어지던 예술교육은 비슷한 연령대의 구성으로 노인층, 중장년, 청소년, 어린이와 같이 구분 지어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사업은 문화 다양성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다문화와 비다문화를 아우르고, 또한 각 세대 간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하였습니다. 수업 초기 단계에서는 이주민과 원주민이 서로의 문화를 수용하는 것이나 할머니, 엄마, 아빠, 이모, 동생 등 가족 구성원 사이의 소통이 어렵고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깊어짐에 따라 어색함을 벗고 서로간의 연결이 돈독해지고, 스스럼없이 다가가 함께 뛰어 놀고 즐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꿈꾸는 무지개 '흥' 놀이터>의 특별한 수업은 이주 외국인들을 교육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그들이 형성하고 일궈낸 문화를 소개하고 공부할 수 있는 나눔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과 태국의 무용전공 이주민을 강사로 초빙하여 직접 자신의 예술을 표현하고 즐기는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라온 환경은 다르지만 예술의 공통적인 부분과 차이점을 알아가고 여러 문화가 공존하며 새로운 문화가 발생하는 현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짧거나 길었던 4개월간의 수업으로 서로의 개성과 흥을 존중하며 표현해가는 발전을 이루어 마지막 결과 발표회는 수업 참여자뿐 아니라 예술인들 모두가 어우러지는 축제의 형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일곱 빛깔,
일곱 개의
감각
통합하기

Q. 귀 단체가 문화다양성을 바탕으로 펼치고자 하는 즐거운 사업계획은 무엇입니까?

A. 문화예술교육의 지속적인 어려움과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나눔인가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던 불안감은 이번 사업을 진행하며 수업 참가자들과 공연 관람자들에게 받은 사랑과 관심으로 다른 어떤 평가보다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는 다양한 의견도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뿌리인 전통음악과 춤이 다소 지루하다 어렵다는 보편적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적 나눔과 소통에 일조하는 일은 예술인으로서 매우 보람된 일입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우리 음악과 춤을 소재로 더 다양한 작품들(북의 리듬과 조형 아트, 앞뒤 가면무와 미술수업의 조화, 다양한 외국무용과 한국무용의 융합 등)을 접근하기 쉽고 흥미롭게 안무하여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는 것입니다.

3. (사)한국문화교육진흥원 평택시지회

○ 설립연도 : 2015

○ 소재지 : (17772) 경기도 평택시 송탄로 255, 2층(서정동)

○ 단체 소개 : (사)한국문화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은 문체부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이 문화가 되고 문화가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교육사업과 나눔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진흥원은 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아르떼(ARTE) 주관 '부처 간 문화예술 교육 사업' 수탁 실시(군부대 장병, 산업단지 근로자), 시낭송 공연, 시극 공연, 교도소 재소자 인성교육, 각급학교 오리엔테이션 수탁, 청춘 콘서트 개최, 중고등 학생 대상 시낭송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외 계층 및 일반 시민들이 즐겁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단체입니다.

○ 사업명 : 시지컬(sisical) - 시와 몸짓으로 하나되기

○ 담당자 : 윤경모(010-3299-9068, npunsu@gmail.com)

○ 참여인력

세부단체사업

기획자	주강사	보조강사	보조인력	기록 및 기타	특강강사
윤경모	손은선 정문환	최혜주 이춘원	-	주은선(촬영)	-



○ 공통질문

Q. 문화다양성을 무엇이라고 인식하십니까?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소견을 알려주세요.

A. 문화다양성이란, 어떤 사물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관점을 수용하여 선입견이나 입장에 따른 편향된 결론 또는 현상의 규정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사회에 외국인을 비롯한 다문화 가정, 그리고 해외 생활을 하는 내국인들이 갖는 생활 및 문화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Q. 귀 단체의 사업진행 중 문화다양성은 어떻게 반영됐습니까? 기존의 수업과 문화다양성을 바탕으로 전개된 수업은 어떤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A. 우리 프로그램은 연극과 시낭송을 중심으로 한 자기 표현력 강화로 문화다양성 반영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지는 않았습니다. 교육시간과 별도의 캠프 및 연극관람 등을 통해 프로그램 참가 학생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한 탐구와 이해를 높이려 하였으나, 학교측의 교외 활동 불허 등으로 인해 시행되지 못해 주로 놀이와 상대방 관찰하기, 연극과 시낭송 연습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결과자료집

Q. 귀 단체가 문화다양성을 바탕으로 펼치고자 하는 즐거운 사업계획은 무엇입니까?

A. 우리는 시낭송을 매개로 다양한 문화예술과 융합하여 시민들이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공연들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단체입니다. 우리 단체는 다문화 여성과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시낭송 교육을 실행하고 있으며, 무용과 국악, 관현악 등과의 협연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시낭송을 통한 시극(詩劇-시지컬 Sisical)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사업계획은 현재 시조창(창 및 낭송), 중국과 프랑스의 시낭송을 결합한 사업을 기획 중입니다.

일곱 빛깔,
일곱 개의
감각
통합하기

4. 사단법인 한국이앰피협회

○ 설립연도 : 2016

○ 소재지 : (04209)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옛길 36(신공덕동)

○ 단체 소개 : 독일통합예술교육 EMP(Elementary Musicpedagogy)/Rhythmic 연구 단체. EMP란 한 프로그램 안에서 음악과 움직임을 중심으로 다른 예술영역의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어 구성되어진 독일의 통합예술교육입니다. (사)한국이앰피협회는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선진국가의 공인된 통합예술교육인 EMP/Rhythmic을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연구하고 그에 따른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 사업명 : EMP/리드믹 예술놀이터

○ 담당자 : 김호정(010-2590-4631, hojungsonne@hotmail.com)

○ 참여인력

기획자	주강사	보조강사	보조인력	기록 및 기타	특강강사
현지숙	김호정	조남미	-	-	남명지

세부단체사업



○ 공통질문

Q. 문화다양성을 무엇이라고 인식하셨습니까?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소견을 알려주세요.

A. 문화다양성이란 언어, 의상, 관습, 전통 등 사회를 형성하는 문화적 차이라고 인식하였습니다. 세계의 지역적 특성과 기후의 변화에 따라 적응하는 방법의 차이가 서로 다른 사회를 형성하면서 문화의 차이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다양성은 사회를 발전시키는 요소이기에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를 잘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Q. 귀 단체의 사업진행 중 문화다양성은 어떻게 반영됐습니까? 기존의 수업과 문화다양성을 바탕으로 전개된 수업은 어떤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A. 수업 중 다양한 문화를 가진 나라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음악과 움직임을 통해 그 느낌을 표현하고 리듬을 창작하여 연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어 외에 구사 할 수 있는 언어를 활용하여 자신감을 가지게 하였고 언어를 리듬과 연결시켜 리듬언어를 창작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언어의 울림과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억양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 하면서 언어를 음악과 움직임 그리고 연극의 형태로 전환시켜 보는 시간을 자주 가졌으며 자연스럽게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을 접하면서 공동체의 조화를 가지게 하는 수업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자료집

일곱 빛깔,
일곱 개의
감각
통합하기

Q. 귀 단체가 문화다양성을 바탕으로 펼치고자 하는 즐거운 사업계획은 무엇입니까?

A. 문화는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하고 창조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는 각각의 나라와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각기 다른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면서 공유할 때 그 사회는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의 다양성을 예술을 통해 접목시키고 자연스럽게 문화다양성을 이해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입니다. 예술을 통하여 감정이 움직이고 서로를 이해할 때 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하기에 더욱 효과적이라 판단되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더욱더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5. 달그락 아트 컴퍼니

○ 설립연도 : 2017

○ 소재지 : (03711) 서울시 서대문구 가재울미래로 2 DMC 파크뷰자이아파트 119동 2004호

○ 단체 소개 : 다양한 공연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안무가 및 무용수로 구성되어 있는 달그락 아트 컴퍼니는 예술로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참여자 중심의 문화예술활동을 지향하는 단체입니다. 달그락 아트 컴퍼니는 융합교과 및 창의인성교육 영역과 공연예술로서의 무용을 남녀노소 누구나 예술을 쉽고 즐겁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며 타 장르(무용, 시각예술, 미디어아트, 연극, 영상 등)와 협업을 통하여 통합예술교육으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미적 체험활동으로서의 예술교육 연구 및 통합예술교육자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단체입니다.

○ 사업명 : 우리들만의 랄라랜드를 찾아서

○ 담당자 : 정경선(010-4572-5575, hssy7775@naver.com)

○ 참여인력

세부단체사업

기획자	주강사	보조강사	보조인력	기록 및 기타	특강강사
정경선	김미애 최아름	이지은	현아람	-	박새미



○ 공통질문

Q. 문화다양성을 무엇이라고 인식하셨습니까?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소견을 알려주세요.

A. 세계화되어가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 문화의 고유성과 단일 민족이라는 고정관념이 아직도 남아 있지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문화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문화의 다양성은 각 문화에 따라 지역이나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특징이자 이러한 문화의 다양함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교육, 체험, 예술이 함께해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된다면 새로운 문화가 발전하고 공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귀 단체의 사업진행 중 문화다양성은 어떻게 반영됐습니까? 기존의 수업과 문화다양성을 바탕으로 전개된 수업은 어떤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A. <우리들만의 랄라랜드를 찾아서>는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일상에서 서로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자신이 느끼고 있는 다름이 다양함으로 이해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초반에는 아동들이 자신과 주변의 문화적인 차이들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게 감정에 따른 움직임과 액션페인팅 등 활동적인 수업으로 마음껏 표출하게 하였으며, 그 과정 속에서 서로의 공감대를 찾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 과정 속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주제와 교육재료를 자신 만의 방법으로 재해석해 표현함으로써 서로의 표현방식을 존중하고 자아 존중감을 이끌어냈습니다. 더불어 아이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스스로 변화시켜 표출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바라봐 주고, 호응해주고, 공감해주며 아동들의 흥미와 적극성을 일깨우도록 했습니다.

결과자료집

일곱 빛깔,
일곱 개의
감각
통합하기

Q. 귀 단체가 문화다양성을 바탕으로 펼치고자 하는 즐거운 사업계획은 무엇입니까?

A. 서로 다른 문화가 교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거나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만의 랄라랜드를 찾아서>의 후속 통합예술교육프로그램을 연구 및 개발하여 아동들에게 학교라는 일상적인 공간이 나와 친구들의 즐거운 상상과 생각이 모여 새롭게 창조되는 예술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고 싶습니다. 학교 밖의 주변 시설이나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공자원과의 연계하여 아동들의 일상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창의적 사고와 예술적 감수성을 키워 아동들이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자 합니다.

6. 린(lean)협동조합

○ 설립연도 : 2015

○ 소재지 : (04707) 서울시 성동구 무학로 8길 14, 3층 314호(홍익동, 우림빌딩)

○ 단체 소개 : 린(lean)협동조합은 예술의 힘을 믿고, 예술이 필요한 곳으로 직접 찾아가는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협동조합입니다. 린(lean)협동조합은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문화소외계층의 자기 문화 활동과 문화공동체를 실현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토대로 문화예술인들의 안정적인 활동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까지 다문화가정의 유아 및 어린이, 건강 장애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등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업명 : 춤추는 그림책

○ 담당자 : 오지민(010-2019-2120, helenoh1@daum.net)

○ 참여인력

세부단체사업

기획자	주강사	보조강사	보조인력	기록 및 기타	특강강사
오지민	류선운 최윤정 이인선 장강희	-	-	-	-



○ 공통질문

Q. 문화다양성을 무엇이라고 인식하셨습니까?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소견을 알려주세요.

A. 우리는 문화다양성을 “개인 및 사회를 단 하나의 잣대로 구별 짓고 옳고 그름으로써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존재들이 갖는 모양 · 빛깔 · 형태 · 양식 등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이러한 차이와 다름이 존중 받을 수 있다는 삶에 대한 태도 전반” 이라고 생각합니다.

Q. 귀 단체의 사업진행 중 문화다양성은 어떻게 반영됐습니까? 기존의 수업과 문화다양성을 바탕으로 전개된 수업은 어떤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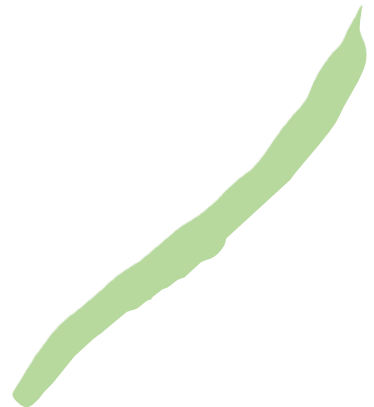
A. 기존의 무용 수업은 창의성, 표현에 초점이 맞췄다면 이번 교육에서는 차이, 존중, 문화적 민감성, 상호의존성, 연대와 협력의 가치가 예술을 통해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그러한 가치를 반영한 그림책을 선정해 함께 읽어보고,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다름을 이해하고, 길쌈놀이와 같이 협력이 필요한 활동을 통해서 연대의 가치를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과자료집

Q. 귀 단체가 문화다양성을 바탕으로 펼치고자 하는 즐거운 사업계획은 무엇입니까?

A. 장애/비장애를 구분 짓지 않는 무장애 예술교육, 새터민과 함께 하는 예술교육 등 우리사회에서 차별의 벽이 존재하는 다양한 이슈들을 발굴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 예술(교육)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고자 합니다.

일곱 빛깔,
일곱 개의
감각
통합하기



7. 문화예술 상상바

○ 설립연도 : 2014

○ 소재지 : (10021) 김포시 월곶면 용강로 103번길 92-23

○ 단체 소개 : 무더운 여름, 시골창고에 모인 지역예술가들이 하드를 닦다,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핥듯 우리
의 즐거운 상상을 맛있게 실현시켜 보면 어떨까?' 다소 장난 어린 바 농담에 모두들 웃었고, 그렇게 시작되었습
니다. 일상의 즐거운 순간을 담아내는 예술, 이웃과 일상 가까이 나누고 실현시키는 예술활동을 구현하고자,
달콤한 상상바라는 이름으로 예술가 단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 사업명 : 다다연극프로젝트

○ 담당자 : 서현석 (010-3014-3033, iloveletter@naver.com)

○ 참여인력

기획자	주강사	보조강사	보조인력	기록 및 기타	특강강사
최나영 서현석	김용우 김성철	최영미	-	최나영	최의선

세부단체사업



○ 공통질문

Q. 문화다양성을 무엇이라고 인식하셨습니까?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소견을 알려주세요.

A.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인종, 종교, 사회, 경제, 관념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고 다름이 틀림이 아님을, 그리고 다름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문화다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유한 문화 속에 편견이 있습니다. 사회는 다변화 해 가고 있고, 새로운 변화들 속에 갈등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앞으로도 교육에 있어서 문화다양성은 갈등을 해결 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교육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Q. 귀 단체의 사업진행 중 문화다양성은 어떻게 반영됐습니까? 기존의 수업과 문화다양성을 바탕으로 전개된 수업은 어떤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A. 김포라는 지역은 넓게 형성된 공장지대와 축사들로 인해 특히나 외국인 근로자, 이주여성들과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이들만의 한글교실과 이들만의 모임은 있지만, 지역 사회의 일반 내국인들과의 접촉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경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어울림이 중요했습니다. 한 팀이 되어 하나의 연극을 올리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과정 중심이었고 그러기 위한 신체 훈련과 놀이, 감각 깨우는 연극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받은 차별과 경험과 가지고 있는 상처들을 보듬는 시간 또한 필요했습니다.

결과자료집

일곱 빛깔,
일곱 개의
감각
통합하기

Q. 귀 단체가 문화다양성을 바탕으로 펼치고자 하는 즐거운 사업계획은 무엇입니까?

A. 문화다양성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김포 지역은 외국인 비중이 많고, 새로 유입되는 주민수가 토착민 보다 많아 문화갈등이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사회구성원뿐만 아니라 초·중·고 학생들에게 쉽게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참 가치를 일깨울 수 있는 재미있으면서 유익한 공연을 기획하고 싶습니다. 체험과 관람을 통해 문화다양성을 쉽게 이해하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찾아가는 뮤지컬 공연과 체험의 문화예술 활동을 기획하고 싶습니다.

8. 아트크리에이티브그룹 행복한상상

○ 설립연도 : 2017

○ 소재지 : (11651)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40번길 26, 1210호

○ 단체 소개 : 아트크리에이티브그룹 행복한상상은 예술경영, 연출, 연극, 무용, 음악, 영화 등 문화예술 전분야의 기획자, 창작자, 예술교육가가 만든 프로젝트 그룹으로 장르간의 무한한 융합과 교류를 바탕으로 한 문화예술 창작 그룹입니다. 브랜드 공연 제작, 축제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하는 콘텐츠 사업팀과 성인, 청소년, 노인 등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교육 콘텐츠의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하는 콘텐츠 사업팀, 문화정책, 지역재단설립, 지역문화진흥 등 다양한 문화관련 연구조사를 실행하는 연구사업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사업명 : My Story, My Dream

○ 담당자 : 송경희(010-8372-8436, happysangsang2017@naver.com)

○ 참여인력

세부단체사업

기획자	주강사	보조강사	보조인력	기록 및 기타	특강강사
송경희	김종일	정주원	-	김진환	최정근
	김주영	서희원		김진하	김종호
	김진환	이정현		채화용	황정우
	이규훈	옥민아			
	차영주	박진경			
	최린				



○ 공통질문

Q. 문화다양성을 무엇이라고 인식하십니까?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소견을 알려주세요.

A. 우리 사회 안에서서 누구나 똑같은 인간으로서 인격과 권리를 가지며, 다양한 인종과 세대, 취향 및 선호, 국가별 문화의 다름이 존중되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내가 아닌 타인의 삶에 대한 이해와 인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Q. 귀 단체의 사업진행 중 문화다양성은 어떻게 반영됐습니까? 기존의 수업과 문화다양성을 바탕으로 전개된 수업은 어떤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A. 사업이 진행된 경기북부는 미군부대 소재지로 다양한 외국인들과 경제적 입지조건으로 인한 노동이주민들의 삶의 근거지입니다. 다양한 인종과 국가별 이주민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편견이 아직 자리 잡기 전인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로의 다름이 어색하지 않고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함께 즐기면서 동질감을 느끼고 서로 이해하고 협업할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하나의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 장르를 활용하여 문화적 동질감을 통해 친근감을 형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공통된 문화적 취향의 향유 속에서 다양한 인종과 문화에 대해 동질감을 형성하고, 다름의 차이를 이해하면서 인정할 수 있도록 협업 구조를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공통된 문화적 취향의 향유 속에서 다양한 인종과 문화에 대한 차이보다 동질감의 형성 속에서 서로 다르지 않음을 인지하게 하며 서로의 다름의 차이도 이해하고 인정하게 할 수 있도록 협업의 구조를 통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했습니다.

결과자료집

일곱 빛깔,
일곱 개의
감각
통합하기

Q. 귀 단체가 문화다양성을 바탕으로 펼치고자 하는 즐거운 사업계획은 무엇입니까?

A. 아직 편견이 자리잡지 않은 순수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공통의 문화를 서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에듀엔터테인먼트의 참여공연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동화 속에는 공통된 삶의 문화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참여공연을 제작해 보고 싶습니다.

9. 예비사회적기업 아티처

○ 설립연도 : 2016

○ 소재지 : (05837) 서울시 송파구 문정로 246

○ 단체 소개 : 이 사회에 팽배한 지역 간 빈부격차에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 것이 문화적 빈부격차입니다. 사회적 풍토로 보았을 때 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예술, 문화생활은 돈 있는 사람이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적 인식의 오류를 환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용이 불안정한 예술가들을 위하여 문화예술활동과 공연을 기획하고 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사업명 : 다(多)함께 돌자, 무대 한 바퀴

○ 담당자 : 신정국(010-9144-9505, arteacher_leader@naver.com)

○ 참여인력

세부단체사업

기획자	주강사	보조강사	보조인력	기록 및 기타	특강강사
신정국	신정국	정형진	-	지소진(촬영)	이현용
	고아라	손지민			송진라



○ 공통질문

Q. 문화다양성을 무엇이라고 인식하셨습니까?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소견을 알려주세요.

A. 문화다양성이라는 말 자체가 다문화 아이들에게 편견을 주는 단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언어를 쓰고 피부색만 다를 뿐이지 한국아이들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Q. 귀 단체의 사업진행 중 문화다양성은 어떻게 반영됐습니까? 기존의 수업과 문화다양성을 바탕으로 전개된 수업은 어떤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A. 문화다양성의 아이들 중에 분노조절장애 아이들이 많다고 들어 연극치료를 도입하였습니다. 물론 분노조절장애 아이들이 다수 있었지만, 그 외의 수업에서는 차별을 두지 않고 교육하는 것이 차별점이라 생각합니다.

Q. 귀 단체가 문화다양성을 바탕으로 펼치고자 하는 즐거운 사업계획은 무엇입니까?

A. 차별을 두지 않는 것과 굳이 문화다양성의 아이들을 위한 사업계획이라면, 가정환경으로부터 고통 받는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결과자료집

일곱 빛깔,
일곱 개의
감각
통합하기



10. 와이즈발레단

○ 설립연도 : 2007

○ 소재지 : (04136) 서울시 마포구 대흥로 20길 28 마포아트센터 B104호

○ 단체 소개 : 와이즈 발레단은 "예술을 통한 사회공헌"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무상예술교육, 나눔티켓 등의 재능기부 사업을 지속하며 문화소외계층에 발레전도사의 역할을 해오고 있는 저력있는 예술단체입니다. 클래식발레의 대중화와 창작발레의 예술적 가치창조를 목표로 2005년 창단되어 연간 100회 이상의 해외/전국 단위 공연 활동을 심 없이 해오고 있으며, STP발레 협동조합원, 중국 광저우발레단과 MOU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사업명 : 행복한 춤 놀이터 - 컬러풀 댄싱키즈

○ 담당자 : 박은하(010-3044-2080, wiseballet@naver.com)

○ 참여인력

세부단체사업

기획자	주강사	보조강사	보조인력	기록 및 기타	특강강사
박은하	이은주	김예지	홍성욱	김윤관(사진 영상)	김길용
김인희	박은성	이소현	이아람	박유진(디자인)	이아람
최진수	우만제	김찬미	김윤성		황인선
	김지혜	강현성	김명훈		



○ 공통질문

Q. 문화다양성을 무엇이라고 인식하십니까?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소견을 알려주세요.

A. 생물학적으로 다른 인종이거나 문화적으로 다른 언어, 관습의 차이에서 오는 생경함을 불편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귀 단체의 사업진행 중 문화다양성은 어떻게 반영됐습니까? 기존의 수업과 문화다양성을 바탕으로 전개된 수업은 어떤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A. 수업 출석인원 절반 이상이 한국문화와 한국어에 서툰 다문화가정 출신 어린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언어의 장벽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체를 활용한 표현놀이를 많이 진행하여 친밀감과 즐거움을 극대화 시키려고 했습니다.

Q. 귀 단체가 문화다양성을 바탕으로 펼치고자 하는 즐거운 사업계획은 무엇입니까?

A. 발레단이 상주하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문화다양성 공연 및 예술교육 활동을 통해 문화다양성을 확장하고 싶습니다. 또한 발레단에 근무하는 외국인 무용수들이 한국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다면 귀기울여 들어주고, 소속된 단체에 자긍심을 느끼고 활동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소통할 것입니다.

결과자료집

일곱 빛깔,
일곱 개의
감각
통합하기



11. 정형일 Ballet Creative

○ 설립연도 : 2011

○ 소재지 : (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당구 권광로 208 인송빌딩 6층

○ 단체 소개 : 정형일발레크리에이티브는 컨템포러리단체로서 예술성과 수준 높은 작품으로 평단과 무용애호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반 관객들에게 다가가고자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작품 활동과 찾아가는 공연서비스 등 왕성한 공연활동을 펼치고 있고,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도 기능적인 예술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문화예술 향유자 확대에 목적을 두고 무용분야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안무자 정형일과 단체의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무용 분야의 질 높은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연령별, 지역별, 대상 특성별 요구되는 다양한 형태의 접근 방식과 표현방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능 위주의 여가활동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주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사업명 : 창의 무지개학교

○ 담당자 : 전찬미(010-9932-9975, chanmi629@daum.net)

○ 참여인력

기획자	주강사	보조강사	보조인력	기록 및 기타	특강강사
정형일	정우진	김유나	-	정우진	-
	정혜란	문다희		정혜란	
	정지현				



○ 공통질문

Q. 문화다양성을 무엇이라고 인식하셨습니까?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소견을 알려주세요.

A. 문화가 다양하다는 것은 세상이 넓다는 것을 인정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문화는 차이가 있다는 것보다 다양하다는 표현이 더욱 올바르다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자신을 기준으로 남들을 관찰하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 환경에 맞는 생활양식이 존재한다는 융통성과 유연한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한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의 문화 안에 다양한 경험과 그로 인한 다양한 성격들이 있는 것처럼 다양하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영역이 다를 뿐, 모두 사람이 사는 세상의 이야기는 그것만의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Q. 귀 단체의 사업진행 중 문화다양성은 어떻게 반영됐습니까? 기존의 수업과 문화다양성을 바탕으로 전개된 수업은 어떤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A. 문화 다양성이란 사람의 다양성에서 기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소수의 강사가 진행하는 수업은 여전히 그들만의 세상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연령, 다른 지역, 다른 경험의 아이들이 서로를 바라보고 소통하는 것이 다양한 개인을 이해하는 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한 수업은 문화다양성 그 이상의 인간의 다양성을 보여주기로 한 수업이었습니다. 서로의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소통 방식을 이해한다는 것 이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 역시 완벽한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노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과 태도가 아니라, 다양함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욱 의미를 찾아가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도제식 수업 때에는 볼 수 없던 적극성과 밝은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었고, '수업'이라는 틀 안에서 자연스러운 공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자료집

일곱 빛깔,
일곱 개의
감각
통합하기

Q. 귀 단체가 문화다양성을 바탕으로 펼치고자 하는 즐거운 사업계획은 무엇입니까?

A. 향후에 다양한 문화의 아이들과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춤을 통해 더 많은 표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여러 문화의 노래를 통해 각자 좋아하는 음악을 고르고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물론 선생님과 소통을 통한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자신의 경험을 작품으로 만들어 타인에게 소개할 수 있다면 더욱 즐거운 경험일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우리나라에 적응해서 살고 있는 여러 부모님들 혹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춤을 배워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언어나 외향이 다르더라도, 표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를 온 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IV. 전문가 좌담회



결과 공유회 & 좌담회

전문가 좌담회

- <일곱 빛깔, 일곱 개의 감각 통합하기> 결과 공유회 & 좌담회
- 장소 : 2017년 12월 7일, 경기문화재단
- 참가자 : 조도자(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 정책실장) 이완(아시아인권문화연대 대표),
양철모(공공미술삼거리 작가), 공지영(경인일보 문화부 기자),
문성진(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팀장), 문형순(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팀)
- 세부내용



전문가 좌담회

- <일곱 빛깔, 일곱 개의 감각 통합하기> 사업을 통해 11개 단체 14개 지역을 지원했고, 모니터링과 인터뷰를 통해 진행과정과 결과를 공유했음.

- <***>에서 느꼈던 좋은 점은 발레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은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임. 부천은 중동이나 상동 같이 변화한 곳에 발레학원이 한 두 곳 있는 실정이며, 다른 동에서는 발레학원을 보기 어려움. 생소한 장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 자체에는 일단은 높은 평가를 받아도 좋겠음. 아이들 관리도 잘 이뤄지고 있는 듯 했으며, 신발이나 의상, 간식 등을 준비하는 모습에서 정성이 느껴 졌음.

- 기능적인 전문성이 뛰어난. 아이들에게 발레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기도 했지만 전문적으로 발레를 하는 분들에게도 문화예술교육측면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가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함.

- <***> 에 아쉬운 점은 부천 지역에 대해 정보가 부족했다는 점. 장소나 아이들 섭외, 혹은 기타 돌발사항이 생겼을 때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사업수익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사업 종료 이후 지역 내에서 연속성을 가지기 어려울 수 있음.

- <***> 의 경우, 과거에는 군부대의 예술교육 프로그램, 성인 대상의 시 프로그램을 진행했음. 아이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아동 프로그램 경험이 있는 선생님을 초빙해 진행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데렐라를 변형한 연극대본을 봤을 때 용어나 주제가 아이들에게 적합한지 의문이 들었음.

- 다문화 쪽에서는 중요하고 민감한 이슈임. 실제로 다문화가족 안에는 중도 입국한 아이들이 있거나, 아빠의 자녀와 계보가 형성되거나, 엄마와 나이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 갈등이 커지는 문제가 있음. 혹은 실제 낳은 아이들도 일정 정도 연령이 되면 엄마를 무시하면서 관계가 단절되는 문제들이 있음. 부정적인 엄마의 모습을 노출시키는 것에 대해 오랫동안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잘 고쳐지지 않고 있으며, 전통적인 맥락에서 비판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어 문제라고 생각함. 다문화감수성, 문화다양성에서 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지점을 놓치고 간 점은 크게 지적 받을 수 있음.

- 단체 선정 이후 사전 교육 워크숍을 통해, 다름에 대해서 교육하고 이해하면서 접근해야 할 필요 있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매개자 교육이나 사전 교육을 진행할 예정임.

- 다문화감수성,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음. 때문에 이에 대한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는 단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기획 초기 단계에서 컨설팅을 제대로 해주는 것도 필요함.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진행 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보완책이 됨. 컨설팅 시기는 기획서를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단체가 선정된 직후가 좋음. 그리고 중간 점검을 하듯이 두 세 차례 정도 추가로 만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함. 지금까지 중간과 후반 시점에 진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수행단체에도 해가됨.

- 2018년에는 컨설팅 협의체를 구성해볼 예정. 심사위원을 포함한 컨설팅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고 방법적인 면에서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함.

- 이 사업의 성격 또는 비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진다고 생각함. 사업명처럼 소외계층에게 문화나눔을 하고 끝낼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발레에 접근하기 어려운 친구들에게 발레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를 통해서 정체성이 서로 다른 아이들이 함께하고 또는 같이 성장하면서 문화다양성을 학습하는 지점까지 목표로 삼을 것인가에 따라 이 사업이 매우 달라질 것임. 올해 사업은 파일럿으로 진행했고 내년에 더 확대된다고 하면 어떻게 어디까지 바랄 것인지, 성취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제공한 것으로 만족할 것인지 혹은 한발 더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결정한 뒤 2018년 공고에 포함시켜야 할 것 같음.

- 꿈다락의 경우 기관과 함께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럴 경우 기관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기관에 좌지우지되기도 하고, 기관에 필요한 걸 해주기고 함.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과 실험적인 사업 두 트랙으로 나눠서 진행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음. 모두 기관과 함께 진행된다보면 대부분의 작은 단체들도 사업화되어서 지역아동센터 사업만 수행하는 등 문제가 될 수 있음.

결과자료집

일곱 빛깔,
일곱 개의
감각
통합하기



전문가 회담회

- 모든 단체들이 문화다양성을 받아들여서 프로그램에 녹여내는 것이 쉽지 않음. 이는 단체 뿐만 아니라 기획을 베이스로 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울 거라 생각함. 의견이 나왔던 것처럼 사전 공고할 때 문화다양성에 대한 숙제를 같이 내주는 방식으로 최대한 초기에 문화다양성을 해석해서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실제 사업 진행 시 조금 전 얘기 나왔던 컨설팅 위원회 같은 중간 조직이 사려 깊게 단체 고민들을 들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음. 사업 참여 단체들은 70-80%이상은 단위사업의 하나로 인식하기 때문에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소외계층 문화나눔사업에 대한 인식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움. 그렇기 때문에 교수법이나 전문성에 있어서 학생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뛰어난 단체들이 오히려 문화다양성의 개념을 더 잘 인식할 수 있게 집중적으로 성과를 만들어 주고 주목해 주는 것이 필요함. 그래야 이 사업에 대한 정당성이나 공공성이 확보됨.

- 또 다른 고민은 사업을 진행하는 장소에 대한 부분임.사업이 진행되는 대부분의 장소들이 문화소외지역이 아니며 소외계층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아직 못 내렸음. 사업명에는 소외계층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정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음. 예를 들어 장소를 경기북부라는 지역으로 볼 것인지, 혹은 대상 타겟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문화다양성의 개념으로 보면 타겟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유는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화시킬 수 있기 때문임. 2013년 교육나눔팀의 문화나눔사업이 '활생공명'과 '낮달'로 나뉘어 진행되었듯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접근해 개념과 활동 범위를 좁혀 나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음.

- <***>의 경우 추운 날씨에도 프로그램 진행 장소의 난방이 안되는 등 시설이 열악했음. <***>의 경우 모든 강사들이 아이들의 이름을 모두 외워서, 수업 중에 이름을 불러 준 점이 좋았음. <***> 프로그램은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면서 서로 고리를 만들었다 푸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었음. 춤이라는 장르를 통해 아이들끼리의 스킨십을 이상한 움직임으로 구성하고 해체함으로써,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안정적인 교육 가치로 성장시키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함.

- 지역에 따라 시설 차이가 있음. 문화예술공모지원사업을 하면 지침으로 인해 작가 지원, 지역 지원에 제약사항이 많음. 하지만 교육하는 공간으로서의 최소의 시설비용은 지원 되어야한다고 보고 2018년에 반영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 시설지원 아동센터에서 하드웨어 지원사업을 요청하는 것과 공간기반이 없는 단체에서 소외지역의 마을회관에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하드웨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좀 다를 수 있음. 예를 들어<***> 같이 전문적이고 좋은 가치를 지닌 예술가들이 경기북부 탄동리 같은 쇠락한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파출소나 버스정류장 같은 곳에서 다른 제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역의 맥락이나 관계에 연연하지 않은 새로운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새로운 이슈 파이팅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좋은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슈파이팅도 중요함. 사례 깊은 작가들이 간다면 충분히 지역을 설득하고, 지역과 관계 맺으면서 사업이 끝난 다음에도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함.

- 지역마다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같은 기준을 제공하기 보다는 컨설팅 과정이나 평가심사에서 개별성들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식이나 좋다고 생각함.

- 문예진흥 공모지원사업은 단계별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올해 단체들 중에서 우수한 단체들을 선정하여 단계별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올해는 단체 선정에 어려움이 많았음. 단체 선정을 경기 지역으로 제한하게 되면 신청 가능한 단체의 장르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울까지 확장했음. 실제로 <***>의 경우 서울에 위치한 단체이기 때문에, 2018년 사업 대상 지역에 서울을 넣을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들이 생김.

- <***>은 기획자의 문화다양성이나 다문화감수성에 대한 이해가 완벽했지만 신생기관이고, 예술교육을 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현실화될까 궁금했음. <***>은 문화다양성이나 예술교육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있어서 결과물이 가장 궁금한 단체였음. <***>의 경우 발레를 보편화시키고 장르를 확산시키는 것에 관심이 많았지만, 다문화감수성이나 문화다양성에 이해기반이 없었음. <***>는 기획 단계가 거칠어서 걱정이 되었으나 하나의 공간에서 예술을 매개로 다문화가족과 일반 가족들이 만나고 소통한 점은 긍정적이었음. 그리고 예술가나 기획자가 성인 남자였는데, 아이들이 여성이 아닌 성인남성들과 긍정적인 관계 맺기를 한다는 점도 긍정적이었음. 단점은 즉흥적인 것이 많고 준비성이 부족했다는 점이었는데, 극장이 교육장소여서 아이들이 30분, 1시간씩 늦어도 무대로 불쑥 튀어 오르는데 통제가 안되었음. 그리고 성인예술교육과 아동예술교육이 다른 지점이 있을 텐데, <***>는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던 단체이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음.

- <***>은 다문화 구분 없이 '요즘 아이들은 랩에 관심이 있어, 흥미로워 해' 라는 기획자의 예측으로 서로 다른 장르 두 개를 묶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완성도가 높았음.

결과자료집

일곱 빛깔,
일곱 개의
감각
통합하기

- <***>은 주말에 학교에서 진행하였고, 무용베이스의 융복합 프로그램이었음.
하지만 프로그램이 사전에 협의되지 않고 많이 바뀌었음. 결과로 보면 거의
방송댄스반으로 운영하는 형태였고 초등학교 고학년 위주의 것들로 프로그램
되어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학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거의 없었던 점임.



전문가 회담회

- <***>은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었음. 전반적으로 참여
아이들이 이탈이 없었는데 이유는 진행했던 학교가 수원지역 내 다문화지정
예비학교였고, 관련 담당 교사가 있었기 때문임. 다문화지정 예비학교였기
때문에 이미 관련 프로그램이 많아, 유사한 프로그램일 것이라 생각했던 것에
비해 실제 진행해보니 참여 아이들의 이탈이 거의 없었음. 그리고 아이들 중에
문화예술교육 효과가 드러났던 사례들이 있었음. 예를 들어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산만했던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무기력했던 아이가 부반장이
되기도 했음. 그리고 한 두 명은 발레에 소질이 보일 정도로 표현력이나
참여정도가 좋았다는 평도 있었음. 프로그램 진행 장소는 돌봄교실 옆에
있는 두 개의 공간을 사용했음. 이 중 한 곳은 창고였던 곳이었고, 한 곳은
학교 예산을 사용해서 거울을 붙여 사용했음. 학교 환경개선부분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야하는 팁을 얻을 수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개자들이
교수법이라든가 팀티칭 부분이 부족했음. 예를 들면 자문 갔던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던 부분들이 있어 선생님들이 실제 아이들 수업을 해보지
않았던 것 같음. 때문에 역시 매개자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 같은 경우는 마을형 프로그램이었는데 단체의 연습실공간에서 수업을
하다보니 공간이 주는 풍부함이 굉장히 좋았음. 대중교통 접근이 쉽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음. 보통 대 여섯 개를 제안해서 너무 많다, 줄여라,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아이들 프로그램, 엄마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엄마들이 별도로 하는
프로그램들로 나눠서 진행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냄.

- 의정부의 <***>단체도 학교와 연계한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함. 두 개
공간을 쓰다가 난방 문제 때문에 음악실에서 진행했는데, 아이들 공간이 너무
협소했고, 매개자 교육 부분에 한계가 드러났음. 프로그램 자체에 음악교육을
접목시키는 것은 좋았던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에게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사가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표현해주는 부분이 적었던 것 같음.

- <***>의 경우 현장 모니터링을 하진 못했지만 효과가 좋았다고 자체평가를 했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주강사를 통해서 학교와 커뮤니케이션이 좋았던 부분이 있었음. 실제프로그램은 예술강사가 진행했던 단체였기 때문에 효율성 부분에서 좋았음. 문화다양성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음. 이 단체 역시 비연고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한계성이 드러났음.

- <***>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유일무이한 교육단체여서 사실 꿈다락에서도 계속 선정되고 있는 단체이기도 함. 소외지역이기 때문에 이 단체밖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 학교연계부분을 돌봄사업과 연계하는 것이 학교 협조문제나 향유문제 확대에 있어서 좋겠다는 의견이 있음. 경기도 7개 지역 초등학교 돌봄교실 현황 자료를 보면 돌봄교실 자체가 워낙 소외된 아이들 대상 위주이고, 1, 2학년 아이들이 대다수임. 다문화가정도 그 안에 10% 정도 차지하고, 조손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돌봄교실로 연계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다는 결론이 내려질 수 있음. 하지만 돌봄으로만 확정하면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 고등학교는 어떻게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발생함.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 좋을 것 같고, 장르문제와 내년 사업 대상자부분을 다문화뿐만 아니라 조금 더 확장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 좋겠음.

- 꿈다락과 유사하게 진행 되는 것에 대한 우려스러움이 있음. 마루바닥같이 하드웨어를 지원하는 것도 꼭 프로그램에서 필요하다고 판단 됐을 때 시설보조사업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교육청이 해야 하는 일임. 돌봄교실은 계층도 특수하고 안정적인 확보가 되어있으니 좋음. 하지만 지역에 따라 다를 것 같고 문화다양성 개념이 훨씬 큼. 다문화가정 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새로운 가치이기 때문에 아이들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으로서 너무 다문화 돌봄으로 진행하다보면 문화나눔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이 생김. 그런 틀을 정하고 가는게 문화다양성사업의 가치에 긍정적이나, 혹은 초기 움직임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인가, 이런 합의가 필요한 것 같음. 이를 정하지 않으면 계층에 대한 얘기를 매년 반복하게 될 것임. 단계별 구분 혹은 연구사업을 통해 사업 비전을 논의해 볼 수 있으나 지금 이 자리에서 정하기 어려움. 두 번째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려면 문화다양성 관련해서 교육을 많이 했던 아시아인권문화연대에서 교육에 같이 참여해주시고 맡아 주시면 좋을 것 같음. 기존의 방식은 공고를 하고, 제안서를 받고, 심의를 하는 방식에서 두 가지 보완으로 공고할 때 문화다양성에 대한 개념을 주제로 제시해주는 것과 함께 교육프로그램을 사전에 하고 그 다음에 교부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보완적인 공고방식과 실행프로세스를 가져가면 좀 더 나은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결과자료집

일곱 빛깔,
일곱 개의
감각
통합하기

-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전교육에 참여했던 단체와 참여하지 않았던 단체를 극명하게 나눠야 할지 여부가 고민됨. 문화다양성 개념을 공고문에 모두 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문화다양성 개념을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음.

- 그런 부분이 제시되지 않으면 꿈다락 등의 사업에서 떨어진 단체가 계속 들어오게 되는데 이는 이 사업의 취지가 아님. 이 사업이 가진 가치가 건강하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문화다양성 개념이 중심에 있어야 함. 또 다른 꿈다락의 유사사업처럼 비쳐지는 것은 위험함.

- 문화예술 공모지원사업처럼 사업설명회에서 문화다양성 강의를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든지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문화다양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업을 이해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함. 예를 들어 올해 선정된 단체 중 우수 단체가 사업을 진행해본 경험을 강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음.

전문가 최담희



- 문체부TF 팀에서 공공미술 관련한 경험의 지표인 시간축적을 국가시스템으로 지표화하자는 논의가 있음. 문화다양성도 개념을 얼마나 알고 있고, 사업경험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측정이 없는 상황임. 경기도 조례가 만들어졌으니 문화다양성사업의 시간축적시스템으로 더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어주는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내년에 당장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지표가 없으면 계속 심사위원에 따라서 사업 단체가 선정되는 등 운영과 선정에 명확한 기준이 생기지 않을 것임. 조례만 만들어졌고 그것을 실행하는 실행자의 프로세스가, 지표가 빈약한 상황. 사전워크숍 교육을 20시간 이수한 사람과 100시간 이수한 사람은 다름. 행정은 측정이 필요함. 아이를 돌봐 본 사람의 시각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시각의 차이는 비단 교육 문제만은 아님. 기본적으로 아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도 함.

- 아는 것만큼 보임. 안전민감성 부분 등도 경험의 축적 정도에 따라 보이는 것들이 다름.

- 위험 놀이터처럼 아이들을 무조건 풀어놓고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하는 방식은 전략적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방만하게 관리 하는 것이 됨. 특히 아이들 교육에서 위험성과 관리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이고 또 큰 위험이 될 수가 있음. 사고가 한번 나면 사업 자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임.

- 사업의 역할규정도 명확히 책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재단의 의지와도 관련이 있다고 사료됨. 사업명만 보면 소외계층에게 문화나눔을 하는 것이 목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문화다양성이 조금 더 드러날 수 있는 사업명으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소외계층"을 언급한 사업명은 불편함을 줄 수 있음. 그래서 사업의 부제를 '일곱 빛깔, 일곱 감각 통합하기'로 정했지만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느낌을 줄수도 있음. 하지만 부제를 브랜드화 시켜 문화다양성을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프로그램 대상이 대부분 아동이었는데 다양한 세대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

- 처음에 이 사업은 다문화 개념이 포함된 발레교육이었음. 여기에 대상은 다문화가정 아이들과 정주민들, 그리고 장르로서는 발레에서 무용으로, 무용에서 연극과 다원까지 확장하는 것이었음.

- 제안하고 싶은 것은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주목표로 삼는다면 여러 가지 방향과 전략이 가능한데, 누가 얘기해도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매개자 교육임.매개자라는 것은 단순히 문화기획자만이 행정인력일 수도 있고, 교사일 수도 있고, 사람을 다수 만나고 기획하고 실행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음. 이런 전문인력 또는 매개자들에 대한 연수프로그램을 상시로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경기문화재단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함.

결과자료집

- 사업 참여 단체들의 문화다양성 개념 이해 확대를 위해 연수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사업의 일부로 구성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음. 이를 위탁사업 형태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봄.

일곱 빛깔,
일곱 개의
감각
통합하기

- 경기문화재단의 행정인력, 기획자, 청년 활동가 등도 매개자 교육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음. 교육을 받은 사람이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함.

- 2018년 예산 반영에 있어서도 단체나 재단 내부 까지만 생각했던 부분에서 확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음.

- 문화다양성에 대한 기초개념을 공유하고, 사업 진행 전, 재단 관계자와 참여 단체들이 연수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게 하여 문화다양성 확산에 일조할 수 있길 바람.

- 8월 매개자 역량강화 사전워크숍을 확장하여 초반에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음.

- 우리가 조금 더 미래를 보면, 예를 들면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 공무원 연수교육단에 문화다양성과목을 의무교육으로 넣어놨음. 모든 공무원이 수업을 들을 수 밖에 없게 하고, 재단과 시청이 성과평가 항목에 다양성 부분을 넣어서 인식을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제도적인 보완이 있는데 나중에 거기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 제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두 번째 단계라고 생각함. 내년 사업에서는 매개자 연수프로그램을 사전에 짜임새 있게 설계하고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음.

-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대상자 선정 이후 추가적으로 협의하면 될 것 같음. 매개자교육을 제외한 교수법은 프로그램 안에서 설계하면 될 것 같은데 장르는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논의하고 싶음.

- 미술작가라고해서 미술만 하지 않는 것처럼, 문화다양성에서 장르를 정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함. 문화다양성 사업에서 장르가 왜 필요한지 의문임. 아이들이 처해진 맥락이나 상황, 지역의 이슈 등을 기획자가 잘 판단해서 어떤 문화다양성에 대한 개입이 필요한지를 고민하는 것에서부터 이 사업의 실행프로세스가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하지만 장르로 접근하면 예를 들어 전통음악과 랩을 섞는다던가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쉬움. 사실 발레만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레 수업에서 '문화다양성 가치를 가지는 발레수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함. 장르를 정하는 것보다 실행자들이 장르를 기반으로 어떻게 문화다양성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전문가 최담희

- 미술의 경우도 퍼포먼스나 몸의 움직임을 이용한 작업들이 많음. 지원 형식에 익숙해서 장르를 무용, 연극, 다원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음. 하지만 문화다양성은 삶에 녹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 학교, 마을 이런 식으로 다른 세부가 필요하며, 장르에 제약을 두는 것은 이 사업과는 전혀 다른 논의의 문제라고 생각함. 예를 들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꿈의 오케스트라>는 아이들에게 클래식을 가르쳐야하는데, 일곱빛깔 사업은 이와 다르다고 생각함. 예컨대 '몸'으로 열어 두면 굳이 발레나 무용으로 장르를 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 몸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했을 때 발레나 무용, 연극 등을 떠올릴 수 있다고 봄. 미술도 몸으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봄. 또한 가능하면 앉아서 강의하는 방식이 아닌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토론이나 인문학 강의를 통해서 다른 장르와 결합하는 것은 어떤가? 영화도 보고 답사로 연결되는 이런 형태 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음.

- 문화다양성을 경기도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우선시되면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음. 공고를 하는 입장에서도 장르로 하는 게 좋은 방식 같지 않음. 상호문화예술교육에서 아이들과 같이 대화하고, 직접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도록 유도함. 이를 프로젝트성 사업이라고 부르는데 일곱빛깔 사업 역시 프로젝트성 사업이 되어야지, 동센터에서 하는 기타교실처럼 되면 안됨. 프로젝트는 실행기반이 포함되어 있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으므로 문화다양성을 기초로 한 프로젝트성 지원사업, 이런 식으로 명칭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음.

- 프로그램 참여 대상 연령은 계속 초등학생 대상으로 가야 할 것인지 고민이 됨.

- 올해 공고에서 연령부분에 제한이 있었던 것은 아님. 하지만 다른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사업 신청이 없었고, 아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것 같음.

-초등학교 고학년이거나 중학생 이상의 아이들의 참여프로그램들이 올해 실제로 있었는지가 궁금함. 그 연령대가 공백임.

-초등학교 고학년 프로그램이 들어왔던 것이 <***> 이었는데 프로그램이 들쭉날쭉했고, 방송댄스로 변환된 부분들이 있었음. 나머지 단체들 대부분이 저학년 아이들이었음.

- 모든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 저학년은 시설에 맡겨야 되고, 돌봄을 해야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프로그램을 하기가 수월함. 내년도 사업에 탈북기관을 문화다양성 개념에 포함해 가산점을 준다면, 노년층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등의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결과자료집

- 탈북기관이나 새터민 관련 사업은 장기프로그램으로 진행하기 어렵고, 마을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음 .

- 탈북자를 중심에 두자는 것이 아니라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이 지역 초등 학생에만 집중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이야기 한 것임. 문화다양성 확장을 위해 시니어나 경기도 북부 소외지역 등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함.

일곱 빛깔,
일곱 개의
감각
통합하기

- 다문화로 선정된 단체가 생각보다 다문화프로그램을 해본 적이 없음. 선정된 단체가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음.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도 없고 지역에 대한 이해가 떨어짐. 장애도 마찬가지고, 노인도 마찬가지고 대상 연구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음. 내년도에는 대상에 맞는, 예를 들면 장애인 예술가와 이야기하는 워크숍을 해볼 수도 있고 장애와 관련된 사람들이 뭘 필요한지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

- 단체들이 대상 연구를 할 수 있는 확장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음.

- 과거 다른 사업에서 모니터링 요원 한 사람을 실제로 모니터링을 안 하고 외곽지역을 돌면서 이런 사업들을 실행할 만한 사람을 만나서 컨설팅 해주고 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 역할들을 했었음. 정보를 갖고 사업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올라온 공고를 보고 기금지원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새로운 개발이 필요함.

- 이번 단체들은 다문화 관련해서 재단을 통해 접근하기 보다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해서 접근하려는 경향이 컸는데, 이 역시 생각보다 쉽지 않았음

- 장애인이나 노인 쪽도 마찬가지로 실무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개자들도 사람의 문제여서, 어느 정도 관심 있어야 함께 진행 할 수 있는 부분이 큼.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할지 숙제가 많음.

- 어려울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단시간에 무엇을 성취하려고하면 안될 것 같음. 단계를 가져야하고, 내년에는 한 단계 좀 넘어서면 좋겠음. 대상자와 장르를 열어두는 것이 행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내년에는 한 가지 정도만 오픈을 하고 그 안에서 성취를 이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음.

- 시범케이스로 3년 정도를 봐야한다고 보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음. 올해 사업은 마이너스 1단계, 18년도는 0단계 정도로 봄.

전문가 좌담회

- 문화부도 문화다양성사업을 함. 012년에 시작했고 매년 30억씩 예산이 쓰이고 있음. 문화관광연구원에서 문화다양성이 무엇인지,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구결과를 낸 게 2014년 말임. 3년간 내부와 외부에서 모두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 발전 가능성, 사업 전환에 대한 비판을 받으면서 성장했음. 2-3년간 그런 진통이 있을 수 밖에 없음.



- 과거 유사 사업 중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시시콜콜"사업이 있음. 문화소외지역의 거점 공간 조성사업이었음. 공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 하드웨어 지원사업과 프로그램사업을 나눴음. 진행 방식이 독특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니 위원을 정해서 위촉된 위원이 세 군데 공간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천하게 되어있었음. 그 리스트를 가지고 논의자리에서 어디를 지원할지 결정하는 논의테이블이 있었음. 예를 들어서 아시아인권문화연대의 초롱이 어린이집, 다문화 어린이시설 이런 식으로 세 개 정도는 기획과 컨설팅을 하면서 발굴까지 책임을 짐. 담당 위원들이 다른위원들과 실무자를 설득 하는 과정이 있었음. 내가 추천하는 곳이 왜 중요한지 설득 하면서 발굴에 중점을 둘 수도 있음. 이 것은 선정과 공정성의 문제때문에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음. 그래서 기획사업의 형태로 한 두 개 정도의 사업을 철저하게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 볼 수도 있다고 봄. 관리를 하는 것임. 도움도 많이 주고 예산도 좀 더 많이 주면서 기획사업을 통해서 이슈파이팅까지 전략적으로 하게끔 할 수 있다고 봄.

- 일 년 간의 과정이 단체들과 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까지 평가를 확장하려면, 우수 단체의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음. 함께 사업에 참여한 다른 단체의 우수 사례를 직접 보면서, 똑같이 시작했는데 어떤 지점에서 달라졌고 우리와 무엇이 다른지 직접 보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음.



- 내년 3월 말이나 4월 초에 공고를 하고 4월에 단체를 선발하고 4월, 5월, 6월까지를 단체를 교육하고 만나게 하는 스케줄을 생각하고 있음. 의견이 나왔던 것처럼 초기단계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계획서가 수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6월 정도까지 하고 프로그램실행을 7, 8, 9, 10월 정도까지 하고 11월 정도에 성과 공유회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했음. 11월 정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잘된 것과 아쉬운 점 등 공유과정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은 자유학기제나, 이런 말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프로그램에 기본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제안해 볼 수 있는 커리큘럼을 공개할 수 있는 정도까지 성과를 창출해야 하지않나 함. 매개자교육부분의 커리큘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안에 들어가는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식으로 대상연구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음. 4월에 선정이 되면 준비단계가 5월, 6월부터 할 수 있음. 그 안에 단체들도 회의나 교육활동도 할 수 있음.

- 11월에 성과공유회를 하는 것은 좋은데 시작을 더 일찍 하면 안 될까? 보름이라도 일찍 공고가 되어 모집이 안 되면 추가모집도 할 수 있다고 봄. 오늘 논의로 다 결정할 수 없으니까 공고 내기 전에 사전회의를 가지시고 그 때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일을 진행하는 시간을 갖는 걸로 하면 좋겠음.

- 문예진흥사업같은 경우는 좌담회를 대략 6번 했음. 공고안이 나왔더라도 회의하면서 수정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일찍 공고하면 일찍 사업들이 시작되는 것임.

- 다양성하면 여성이 꼭 꺼야 하는데 대상에 여성이 빠졌었음. 아이들 교육에서도 젠더문제가 고려되어야 함.

- 이 사업은 처음으로 문화다양성에 접근을 시도한 문화나눔사업이기 때문에 의미 있었으나 의견이 나왔던 것처럼 비전이 불확실한 상황임. 가치 확산이 궁극적인 목적인 것인지가 불분명함. 오늘 실질적인 논의들이 많이 됐지만 비전부분에 대한 문제를 좀 더 확실하게 정하고 가야한다고 생각이 들음. 미흡한 교수법, 아이들에 대한 이해 부족 등에 대한 문제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매개자교육법 중에서도 교수법이 필요하고 문화다양성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교육에 좀 더 전문성이 있는 단체로 한정하는 것이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음. 아이들 교육이면 아이들, 장애인 대상이면 장애인 전문단체가 문화다양성을 접목시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일일이 컨설팅을 한다고 해도 단시간에 교수법을 다 가르치기엔 한계가 있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지역에 연고가 없더라도 지역에 대한 연구와 공부는 더 필요했다고 보며, 이는 단체가 직접 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함. 물론 급하게 시작된 것도 있지만 내년에는 최소한 이 지역에 대한 연고가 없어도 내가 이 지역을 공부하고, 이 지역에서 내가 교육할 지역의 대상자들이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본인들 스스로의 공부했다는 증거를 받아볼 수 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음. 적어도 내가 들어가는 지역에 대한 공부는 반드시 하고 들어가야 됨.(끝)

결과자료집

일곱 빛깔,
일곱 개의
감각
통합하기

2017년 일곱 빛깔, 일곱 개의 감각 통합하기 결과보고서

주 최	경기도
주관·기획	경기문화재단
기획총괄	문예진흥팀 문성진 팀장
기획운영	문예진흥팀 문형순
편집디자인	공공미술삼거리
발행인	설원기 대표이사
발행처	경기문화재단
주 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경기문화재단 전화 031-231-7237 팩스 031-236-0283 www.ggcf.kr
발행일	2018년 2월 28일



© 2017 경기문화재단